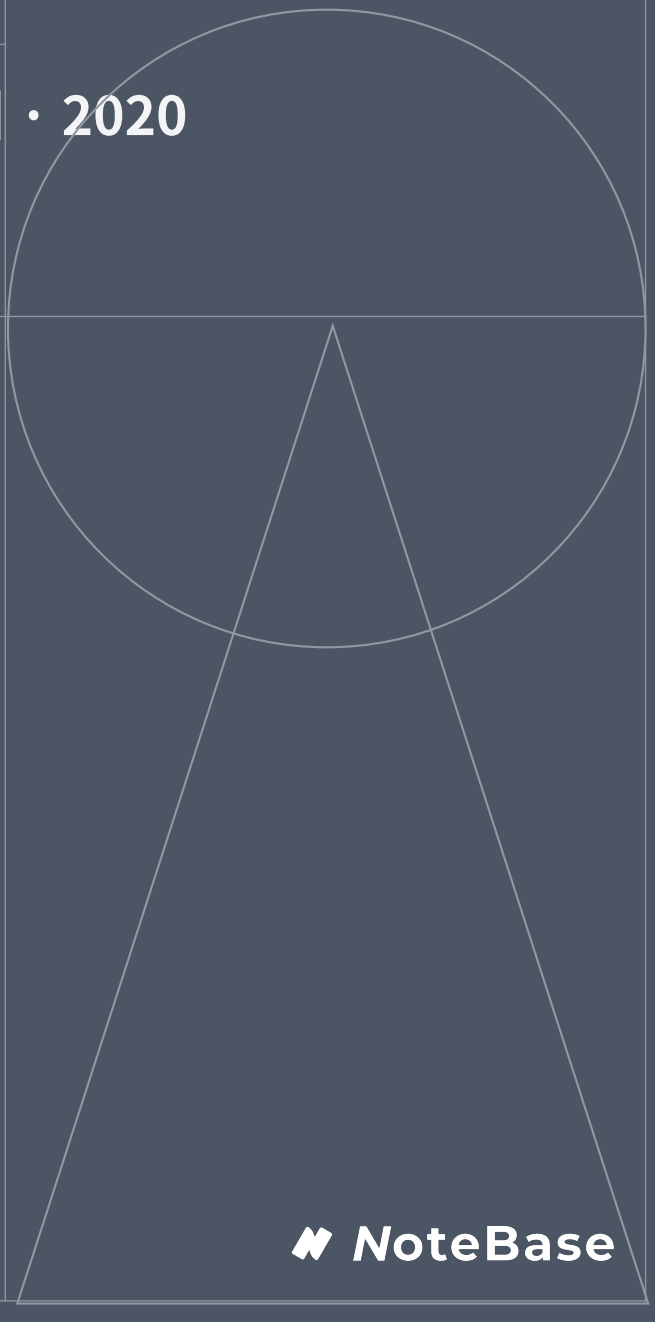
#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역인재/9급 · 국어 · 2020



NoteBase

#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지역인재/9급 · 국어 · 2020

### 공무원/지역인재/9급 · 국어 · 2020

문 1. 높임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거실에서) 얘야, 아버지께서는 안방에 계신다.

② (전화상에서) 아버지, 할아버지께서 저보고 오시래요.

③ (사무실에서) 김 대리가 맡았던 업무는 부장님께 물어봐요.

④ (교무실에서) 선생님, 저희 학교가 어제 뉴스에 나왔습니까?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높임의 대상과 높임 표현이 서로 알맞게 대응하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주체 높임은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표현으로,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 특수 어휘 '계시다' 등을 사용한다. 객체 높임은 목적어나 부사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높이는 표현으로, '께'와 '여쭙다' 같은 어휘를 사용한다. 상대 높임은 종결 표현으로 듣는 이를 높이거나 낮추는 방식이다. 높임 표현은 실제로 그 행동을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아버지께서는'의 '께서'와 '계신다'가 주어인 아버지를 높이며, 아이에게 말하는 상황이므로 종결 표현 '-ㄴ다'도 자연스럽다.

② X — 틀린 표현은 '저보고 오시래요'의 '오시-'이다. 오는 사람은 높임 대상인 할아버지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인 '저'이므로 '-시-'를 쓸 수 없다. 올바르게는 '아버지, 할아버지께서 저보고 오라고 하셨어요.'라고 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높여야 할 부장님에게 일반 동사 '물어보다'를 쓴 '부장님께 물어봐요'이다. 부장님은 묻는 행위가 미치는 객체이므로 객체 높임말을 써서 '김 대리가 맡았던 업무는 부장님께 여쭤봐요.'라고 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같은 학교 구성원인 선생님 앞에서 학교를 낮춘 '저희 학교'이다. '저희'는 '우리'의 낮춤말이므로 듣는 사람인 선생님도 속한 학교를 낮추는 데 쓸 수 없다. 올바르게는 '선생님, 우리 학교가 어제 뉴스에 나왔습니까?'라고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할아버지께서'에 이끌려 '오시래요'까지 맞다고 보기 쉽지만, '오다'의 실제 주체는 '저'이다. ③은 높임 조사 '께'만으로 충분하다고 착각하기 쉽고, ④는 공손한 상황이면 언제나 '저희'를 쓸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서술어의 실제 주체와 객체를 찾고, 그 대상이 높임 대상인지 확인한다. 이어 조사, 선어말 어미, 특수 높임 어휘, 종결 표현이 그 대상과 대화 상황에 맞는지 판단한다. '우리'에 듣는 사람이 포함되면 공동체를 낮추는 '저희'를 쓰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누가 행동하는가, 누구에게 행동하는가, 누구에게 말하는가를 차례로 확인하면 주체·객체·상대 높임을 구별할 수 있다.

NoteBase

문 2. 해당 나이를 지칭하는 말이 아닌 것은?

① 20세 – 약관(弱冠) ② 50세 – 불혹(不惑)

③ 60세 – 육순(六旬) ④ 70세 – 고희(古稀)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나이를 가리키는 한자어와 그에 해당하는 나이의 대응 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약관(弱冠)은 남자 나이 20세, 불혹(不惑)은 40세, 육순(六旬)은 60세, 고희(古稀)는 70세를 이르는 말이다. 50세를 이르는 대표적인 말은 지천명(知天命)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약관(弱冠)은 남자 나이 20세를 이르는 말이므로 바른 대응이다.
② X — 불혹(不惑)을 50세와 연결한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40세－불혹'이며, 50세는 '지천명(知天命)'이라고 한다.
③ O — 육순(六旬)은 60세를 이르는 말이므로 바른 대응이다.
④ O — 고희(古稀)는 70세를 이르는 말이므로 바른 대응이다.

**오답 포인트**

②의 '불혹'과 '지천명'은 공자의 나이에 관한 표현에서 이어지는 말이라 서로 바꾸어 출제하기 쉽다. 불혹은 40세이고 지천명은 50세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나이 표현을 10년 단위로 대응시킨다. 20세는 약관, 40세는 불혹, 50세는 지천명, 60세는 육순, 70세는 고희이다.

**암기 포인트**

20 약관, 40 불혹, 50 지천명, 60 육순, 70 고희로 연결한다.

NoteBase

문 3. 밑줄 친 부분의 외래어 표기가 옳은 것은?

① 갓 구운 바게뜨(baguette)가 참 맛이 좋다.
② 그는 폭설 때문에 타이어를 스노(snow) 타이어로 교체하였다.
③ 그분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젼(vision)을 제시하였다.
④ 우리는 오랜만에 모여 정원에서 바베큐(barbecue) 파티를 열었다.

**정답 2번**

### 출제 포인트

영어 외래어를 한글로 적을 때 된소리 사용 여부와 각 단어의 규범 표기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 핵심 개념

외래어는 원어의 발음을 바탕으로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어의 소리가 강하게 들리더라도 임의로 'ㄸ, ㅃ, ㄲ'처럼 적지 않는다. 또한 이미 정해진 규범 표기는 단어별로 정확히 익혀야 한다.

### 선지별 해설

① X — '바게뜨'는 된소리 'ㄸ'을 쓴 잘못된 표기이다. baguette의 규범 표기는 '바게트'이다.
② O — snow는 발음에 따라 '스노'로 적으므로 밑줄 친 표기가 옳다.
③ X — '비젼'의 '젼'이 잘못된 표기이다. vision의 규범 표기는 '비전'이다.
④ X — '바베큐'는 둘째 음절을 잘못 적은 표기이다. barbecue의 규범 표기는 '바비큐'이다.

### 오답 포인트

①은 실제 발음이 강하게 들린다는 이유로 '바게뜨'라고 쓰기 쉽고, ③과 ④는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비규범 표기인 '비젼'과 '바베큐'에 익숙해져 틀리기 쉽다. 이 문항은 익숙한 표기가 아니라 '바게트·비전·바비큐'라는 규범 표기를 아는지를 묻는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된소리로 적힌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한다. 이어서 자주 틀리는 단어는 규범 표기인 '바게트, 스노, 비전, 바비큐'와 직접 대조한다.

### 암기 포인트

바게트는 '트', 비전은 '전', 바비큐는 '비큐', snow는 '스노'이다.

NoteBase

문 4. 다음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 '길다 : 짧다'는 정도나 등급의 측면에서 반의 관계를 보인다.

① 남자 : 여자
② 스승 : 제자
③ 밝다 : 어둡다
④ 가르치다 : 배우다

**정답 3번**

### 출제 포인트

반의어를 정도 반의 관계, 상보적 반의 관계, 관계적 반의 관계로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 핵심 개념

정도 반의 관계는 하나의 연속적인 척도에서 서로 반대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관계이다. 중간 상태가 존재하고 '더', '매우' 같은 정도 표현을 붙일 수 있다. '길다:짧다'는 길이라는 척도에서 반대되는 정도를 나타내며, '밝다:어둡다'도 밝기라는 척도에서 반대되는 정도를 나타낸다.
상보적 반의 관계는 한쪽을 부정하면 다른 쪽이 되는 관계이고, 관계적 반의 관계는 하나의 관계를 서로 반대되는 역할이나 방향에서 나타내는 관계이다.

### 선지별 해설

① X — '남자:여자'는 정도의 크고 작음을 나타내는 관계가 아니다. 문항의 전통적인 반의어 분류에서는 한쪽을 부정하면 다른 쪽이 되는 상보적 반의 관계의 예이다. 따라서 '정도나 등급 측면의 반의 관계'가 아니라 '상보적 반의 관계'라고 고쳐야 한다.
② X — '스승:제자'는 가르치는 쪽과 배우는 쪽이라는 상호 역할을 나타낸다. 따라서 정도 반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관계를 반대되는 역할에서 나타내는 관계적 반의 관계라고 고쳐야 한다.
③ O — '밝다:어둡다'는 밝기라는 하나의 척도에서 서로 반대되는 정도를 나타낸다. '더 밝다', '조금 어둡다'처럼 정도 표현이 가능하고 중간 정도도 존재하므로 '길다:짧다'와 같은 정도 반의 관계이다.
④ X — '가르치다:배우다'는 같은 교육 관계를 가르치는 방향과 배우는 방향에서 각각 나타낸다. 따라서 정도 반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관계를 반대 방향에서 나타내는 관계적 반의 관계라고 고쳐야 한다.

### 오답 포인트

서로 반대되는 뜻을 지녔다는 사실만 보고 모든 반의어를 같은 유형으로 판단하기 쉽다. 특히 ④의 '가르치다:배우다'는 반대되는 행위처럼 보이지만,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동일한 관계를 서로 다른 방향에서 표현한 것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두 단어 사이에 중간 정도가 존재하고 '더·매우·조금'으로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가능하면 정도 반의 관계이고, 한쪽의 부정이 곧 다른 쪽이면 상보적 반의 관계이며, 동일한 관계의 역할이나 방향만 바뀌면 관계적 반의 관계이다.

**암기 포인트**

길다↔짧다·밝다↔어둡다는 정도, 남자↔여자는 상보, 스승↔제자·가르치다↔배우다는 관계이다.

NoteBase

문 5.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동남아인 두 여인이 소곤거렸다/고향 가는 열차에서/나는 말소리에 귀 기울였다/각각 무릎에 앉아 잠든 아기 둘은/두 여인 닮았다/맞은편에 앉은 나는/짐짓 차창 밖 보는 척하며/한마디쯤 알아들어 보려고 했다/휙 지나가는 먼 산굽이/나무 우거진 비탈에/산그늘 깊었다/두 여인이 잠잠하기에/내가 슬쩍 곁눈질하니/머리 기대고 졸다가 언뜻 잠꼬대하는데/여전히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말이었다/두 여인이 동남아 어느 나라 시골에서/우리나라 시골로 시집왔든 간에/내가 왜 공연히 호기심 가지는가/한잠 자고 난 아기 둘이 칭얼거리자/두 여인이 깨어나 등 토닥거리며 달래었다/한국말로,/울지 말거레이/집에 다 와 간데이
>
> – 하종오, 「원어(原語)」 –

①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적 대상의 심리적 갈등을 고조하고 있다.
② 방언을 통해 시적 대상이 지닌 민족성을 효과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③ 시적 대상과의 친밀감을 강조하기 위해 부사어를 적절히 구사하고 있다.
④ 스스로 묻는 형식으로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반성적 자각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4번**

###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에 사용된 공간 이동, 방언, 부사어, 자문 형식이 각각 어떤 효과를 내는지 구별하는 문제이다.

### 핵심 개념

표현상의 특징을 판단할 때에는 특정 표현이 작품에 실제로 나타나는지만 확인해서는 안 되고, 그 표현이 선지에 제시된 효과를 실질적으로 만들어 내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자문 형식은 화자가 스스로 묻는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태도를 돌아보는 표현이다. 이 시에서 '내가 왜 공연히 호기심 가지는가'라는 물음은 낯선 두 여인을 바라보던 화자가 자신의 호기심을 스스로 성찰하는 대목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공간은 '고향 가는 열차'와 차창 밖 산골 풍경을 따라 이동하지만, 이는 두 여인과 화자가 마주친 상황을 보여 줄 뿐 두 여인의 심리적 갈등을 드러내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시적 대상의 심리적 갈등을 고조'이다. 올바르게는 공간의 이동을 통해 열차 안의 만남과 차창 밖 풍경을 이어 보여 준다고 해야 한다.

② X
'울지 말거레이'와 같은 방언형 표현은 두 여인이 아기들을 달래는 말에 정겨운 말맛을 더하지만, 그들이 지닌 민족성을 부각하지는 않는다. 두 여인의 말은 화자에게 '여전히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말'이며, 한국어 방언형 표현은 그 말의 뜻과 어조를 독자에게 전달한 것이다. 틀린 표현은 '시적 대상이 지닌 민족성을 효과적으로 부각'이다. 올바르게는 방언형 표현을 통해 아기를 달래는 말의 친근하고 정겨운 어조를 살린다고 해야 한다.

③ X
'잠잠히', '슬쩍', '짐짓', '언뜻', '여전히', '공연히', '한참' 등의 부사어는 인물의 행동과 화자의 관찰 태도를 구체화한다. 그러나 화자는 두 여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 채 호기심을 느끼고 바라볼 뿐이므로 이들과의 친밀감이 강조되지는 않는다. 틀린 표현은 '시적 대상과의 친밀감을 강조'이다. 올바르게는 부사어를 활용하여 두 여인의 행동과 화자의 관찰 과정 및 심리 변화를 세밀하게 드러낸다고 해야 한다.

④ O
'내가 왜 공연히 호기심 가지는가'는 화자가 자신에게 던지는 물음이다. 화자는 이 자문을 통해 낯선 두 여인에게 호기심을 보이던 자신의 태도를 스스로 돌아보므로 반성적 자각이 드러난다.

**오답 포인트**

①~③은 작품에 실제로 공간 이동, 방언형 표현, 여러 부사어가 있다는 점을 이용한 선지이다. 그러나 표현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효과까지 맞는 것은 아니다. 특히 ③은 부사어가 많다는 표면적 특징을 '친밀감'과 잘못 연결한 것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표현법을 언급한 선지는 '표현의 실제 존재 → 그 표현이 가리키는 대상 → 문맥에서 발생하는 효과'의 순서로 판단한다. 자문 뒤에 자신의 시선이나 태도를 돌아보는 내용이 이어지면 반성적 자각의 가능성이 크다.

**암기 포인트**

표현의 존재와 표현의 효과는 별도로 확인한다. 스스로 묻고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면 자문을 통한 반성적 자각이다.

NoteBase

문 6. ㉠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말이란 사람이 자기 생각을 남에게 전달하는 도구임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 ㉠ ) 말이 생각 그 자체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하는 문제, ( ㉡ ) 사람은 말없이도 생각할 수 있는가, ( ㉢ ) 사람의 생각하는 방법이 말의 성격을 좌우하고 말의 성격이 생각의 방법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학자나 언어학자들 사이에 꼭 의견이 일치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 | ㉠ | ㉡ | ㉢ |
|---|---|---|---|
| ① | 그러나 | 이를테면 | 그리고 |
| ② | 그러나 | 한편 | 그러므로 |
| ③ | 그래서 | 이를테면 | 그러므로 |
| ④ | 그래서 | 한편 | 그리고 |

**정답 1번**

### 출제 포인트

문장 사이의 의미 관계를 파악하여 대조, 예시, 첨가를 나타내는 접속 표현을 고르는 문제이다.

### 핵심 개념

그러나: 앞뒤 내용이 서로 대조됨을 나타낸다. / 이를테면: 앞의 일반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예로 설명한다. / 그리고: 앞의 내용과 대등한 내용을 덧붙인다. / 그러므로·그래서: 앞의 내용이 원인이 되고 뒤의 내용이 결과가 됨을 나타낸다. / 한편: 앞의 내용과 다른 측면이나 화제를 제시한다.

### 선지별 해설

① O - 말이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라는 확실한 사실과 말·생각의 관계에 관한 논쟁을 '그러나'로 대조한다. '이를테면'은 그 관계에 관한 구체적 질문인 '말없이도 생각할 수 있는가'를 예로 들고, '그리고'는 말과 생각에 관한 또 다른 질문을 덧붙인다.

② X - ㉠의 '그러나'는 적절하지만, ㉡의 '한편'과 ㉢의 '그러므로'가 적절하지 않다. ㉡은 다른 측면을 전환해 제시하는 자리가 아니라 앞의 문제를 구체화하는 예시이므로 '이를테면'으로 고쳐야 한다. ㉢은 앞말의 결과가 아니라 대등한 질문을 추가하므로 '그리고'로 고쳐야 한다.

③ X - ㉠의 '그래서'와 ㉢의 '그러므로'가 적절하지 않다. ㉠은 앞문장의 결과를 잇는 자리가 아니라 확실한 사실과 논쟁적인 문제를 대조하므로 '그러나'로 고쳐야 한다. ㉡의 '이를테면'은 적절하다. ㉢은 인과 관계가 아니라 질문의 첨가이므로 '그리고'로 고쳐야 한다.

④ X - ㉠의 '그래서'와 ㉡의 '한편'이 적절하지 않다. ㉠은 인과 관계가 아니라 대조 관계이므로 '그러나'로 고쳐야 한다. ㉡은 다른 측면의 제시가 아니라 앞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 예시이므로 '이를테면'으로 고쳐야 한다. ㉢의 '그리고'는 대등한 질문을 덧붙이므로 적절하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쉼표 뒤에 질문이 이어진다는 겉모양만 보고 ㉡을 '한편'으로 고르거나, 앞뒤에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을 '그러므로'로 고르기 쉽다. 관련성이 있다고 모두 인과 관계인 것은 아니며, 이 글에서는 첫 질문이 예시이고 다음 질문이 첨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빈칸 앞뒤를 각각 대조, 예시, 첨가, 인과 중 하나로 먼저 분류한다. 앞의 일반적 문제를 구체적인 질문으로 풀면 '이를테면', 같은 층위의 질문을 하나 더 보태면 '그리고'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반대는 '그러나', 구체화는 '이를테면', 나란한 추가는 '그리고'이다.

NoteBase

문 7.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화자에 의해 전달된 메시지를 수용하는 수신자는 어떤 면에서 언어적 메시지보다 여러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에 의해 총체적으로 전달되는 메타메시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즉 사람들은 ( )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은 사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가보다는 얼마나 진지하고 예절 바르게 말하는가, 자신에 대해 얼마나 호의적인가 등을 중심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다.

① 메타메시지보다 그 내용에 더 집중을 한다.
② 말을 들을 때 메타메시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청한다.
③ 무슨 말을 했는가보다는 어떻게 말하는가를 더 중시한다.
④ 실제 대화 내용보다는 화자의 문화적 배경을 더 중시한다.

**정답 3번**

### 출제 포인트

언어적 메시지의 내용과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이 만드는 메타메시지의 관계를 이해하고, 빈칸 앞뒤의 설명을 같은 뜻으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 핵심 개념

언어적 메시지는 말로 직접 전달되는 내용이다. 메타메시지는 말투, 표정, 몸짓, 태도처럼 말의 의미와 관계를 함께 드러내는 비언어적 신호가 종합되어 전달되는 메시지이다. 이 글의 핵심은 수신자가 말의 내용 자체보다 메타메시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 선지별 해설

① X - '메타메시지보다 그 내용에 더 집중한다'는 글의 설명과 반대이다. 올바르게는 언어적 내용보다 비언어적 수단이 전달하는 메타메시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해야 한다.
② X - '메타메시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청한다'는 의식적인 듣기 태도를 뜻하지만, 글은 사람들이 상대의 말투·예절·호의성 등을 바탕으로 상대를 판단한다는 반응 양상을 설명한다. 올바르게는 말의 내용보다 메타메시지를 중심으로 상대를 판단한다고 해야 한다.
③ O - 뒤 문장의 '무슨 말을 했는가'는 말의 내용에, '얼마나 진지하고 예절 바르게 말하는가'는 말하는 방식과 메타메시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무슨 말을 했는가보다 어떻게 말하는가를 더 중시한다는 내용이 문맥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④ X - 글은 상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말투, 태도, 호의성 등 대화에서 드러나는 메타메시지를 제시하며, '화자의 문화적 배경'을 더 중시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실제 대화 내용보다 말하는 방식에서 드러나는 메타메시지를 더 중시한다고 해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메타메시지'라는 핵심어가 들어 있어 그럴듯하지만, 글의 초점은 메타메시지의 중요성을 의식하며 경청하는 태도가 아니라 메타메시지를 바탕으로 상대를 판단하는 현상이다. 빈칸 뒤의 '무슨 말을 했는가보다는'과 '얼마나 진지하고 예절 바르게 말하는가'를 직접 대응시키면 ③을 고를 수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빈칸 뒤에 '즉'이나 구체적 풀이가 나오면 그 문장의 대비 관계를 먼저 찾는다. 이 글에서는 '무슨 말'과 '어떻게 말함'이 대비되므로, 앞 문장의 '언어적 메시지'와 '메타메시지'를 각각 연결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언어적 메시지는 '무슨 말', 메타메시지는 '어떻게 말함'이다.

NoteBase

문 8. '降'은 '강(내리다)'과 '항(항복하다)'으로 읽힌다. '降'의 독음이 다른 하나는?

① 降等　② 投降

③ 降水量　④ 昇降機

**정답 2번**

### 출제 포인트

한자 降이 단어 속에서 '강'과 '항' 가운데 어느 음으로 읽히는지 구별하는 문제이다.

### 핵심 개념

降은 '내리다'의 뜻일 때 주로 '강'으로 읽고, '항복하다'의 뜻일 때 '항'으로 읽는다. 따라서 降等·降水量·昇降機의 降은 '강', 投降의 降은 '항'이다.

### 선지별 해설

① X — 降等은 '등급을 내림'이라는 뜻의 '강등'이므로 降을 '강'으로 읽는다. '항'이 아니라 '강'이 올바른 음이다.
② O — 投降은 '적에게 굴복함'이라는 뜻의 '투항'이므로 降을 '항'으로 읽는다. 다른 세 선지의 '강'과 독음이 다르다.
③ X — 降水量은 '내린 물의 양'이라는 뜻의 '강수량'이므로 降을 '강'으로 읽는다. '항'이 아니라 '강'이 올바른 음이다.
④ X — 昇降機는 '오르고 내리는 기계'라는 뜻의 '승강기'이므로 降을 '강'으로 읽는다. '항'이 아니라 '강'이 올바른 음이다.

### 오답 포인트

같은 한자 降이 들어갔다고 모두 같은 음으로 읽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이 문제에서는 글자 모양이 아니라 단어에서 쓰인 뜻이 '내리다'인지 '항복하다'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降이 등급·비·높이처럼 내려가는 뜻이면 '강', 굴복하거나 항복하는 뜻이면 '항'으로 판단한다.

### 암기 포인트

내리면 '강', 항복하면 '항'이다.

NoteBase

문 9. 다음 글의 ㉠~㉣에 대한 고쳐 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과연 문학작품을 완벽하게 번역할 수 있는가? 인간은 세상을 각자의 시선에서 ㉠보므로 인식의 도구인 각 언어에는 공통된 기준이 있을 수 없다. 세상을 보는 기준이 ㉡부재한 상태에서 번역이 과연 가능한 것일까? 번역은 타 언어를 ㉢비록 우리의 언어 속 유사어로 대치해 놓는 것에 불과하다. 이 말은 번역이 원문과 비슷할 수는 있어도 동일하지는 ㉣않다. 그 대표적인 예가 '뉘앙스'이다. 특히 문학작품의 경우 원문과 일치하는 뉘앙스를 지닌 어휘나 표현이 없어 번역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

① 앞뒤 문맥을 고려하여 ㉠을 '봄으로써'로 수정한다.
②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을 '상대적인'으로 수정한다.
③ 맥락상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을 '단지'로 수정한다.
④ 주어와 호응이 되지 않으므로 ㉣을 '않다는 것이다'로 수정한다.

**정답 1번**

### 출제 포인트

문맥에 맞는 어휘 선택과 문장 성분의 호응을 기준으로 고쳐 쓰기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 핵심 개념

'-므로'는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고, '-ㅁ으로써'는 어떤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임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또한 고쳐 쓰기는 앞뒤 문맥의 의미 관계와 주어·서술어의 호응을 함께 살펴야 한다.

### 선지별 해설

① X — 앞 문장의 '각자의 시선에서 보므로'는 '각자의 시선에서 보기 때문에'라는 원인·이유를 나타내며, 뒤의 '공통된 기준이 있을 수 없다'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봄으로써'는 수단·방법의 의미가 되어 문맥에 맞지 않는다. 틀린 수정 표현은 '봄으로써'이며, 올바르게는 원문의 '보므로'를 그대로 둔다.
② O — 글은 세상을 보는 기준 자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언어마다 기준이 달라 공통 기준이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부재한'을 '상대적인'으로 바꾸면 앞뒤 문맥과 맞는다.
③ O — '비록'은 보통 '-지만'과 호응하여 양보의 뜻을 나타내므로 '대치해 놓는 것에 불과하다'와 자연스럽게 호응하지 않는다. '오직 그것뿐'이라는 한정의 뜻을 나타내는 '단지'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④ O — '이 말은'이라는 주어 뒤에는 그 말의 내용을 밝혀 주는 서술어가 필요하다. '동일하지는 않는다'만으로 끝내면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어색하므로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이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의 '봄으로써'가 문법적으로 가능한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이 문장에서는 '보는 행위'를 수단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마다 공통 기준이 없는 까닭을 밝히므로 '보므로'가 맞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쳐 쓴 표현을 문장에 직접 넣어 본 뒤 의미 관계를 확인한다. 까닭이면 '-므로', 수단·방법이면 '-ㅁ으로써'를 쓰고, 글 전체의 논리와 주어·서술어의 호응도 함께 점검한다.

**암기 포인트**

이유는 '-므로', 수단은 '-ㅁ으로써'이다. '비록'은 양보 표현과, '단지'는 '-에 불과하다'와 자연스럽게 호응한다.

NoteBase

문 10.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느 날 저녁 최 씨가 이생에게 말했다.

"세 번이나 좋은 시절을 만났지만, 세상일은 뜻대로 되지 않고 어그러지기만 하네요. 즐거움이 다하기도 전에 갑자기 슬픈 이별이 닥쳐오니 말이에요."

그러고는 마침내 오열하기 시작하였다. 이생은 깜짝 놀라서 물었다.

"무슨 일로 그러시오?"

최 씨가 대답하였다.

"저승길의 운수는 피할 수가 없답니다. 하느님께서 저와 당신의 연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저희가 아무런 죄악도 저지르지 않았음을 아시고 이 몸을 환생시켜 당신과 지내며 잠시 시름을 잊게 해 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인간 세상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산 사람을 미혹시킬 수는 없답니다."

최 씨는 시녀를 시켜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루춘'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면서 이생에게 술을 권하였다.

창과 방패가 눈에 가득한 싸움터
옥이 부서지고 꽃도 흩날리고 원앙도 짝을 잃네.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을 그 누가 묻어 주랴.
피에 젖어 떠도는 영혼 하소연할 곳 없어라.

– 김시습, 「이생규장전」에서 –

① 최 씨는 이생과 다시 이별하게 되어 슬퍼하고 있다.
② 최 씨가 이생과 재회하게 된 것은 하느님의 뜻이었다.
③ 최 씨는 죽었다가 환생하여 인간 세상에 머물게 되었다.
④ 최 씨는 노래를 통해 이생과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고 있다.

**정답 4번**

###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인물의 말과 삽입된 노래의 내용을 근거로 재회와 이별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지를 묻는다.

### 핵심 개념

내용 이해는 제시문에 직접 나타난 말과 행동을 근거로 인물의 상황과 정서를 판단하는 것이다. 최 씨는 하느님의 뜻으로 잠시 환생하여 이생과 재회했지만, 저승의 운수를 피할 수 없어 다시 떠나야 한다. 마지막 노래는 싸움으로 폐허가 된 세상과 죽은 이들의 참상을 노래하며 이별의 비극성을 드러낸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O — 최 씨는 '갑자기 슬픈 이별이 닥쳐오니'라고 말하고 마침내 오열한다. 이생과 다시 헤어져야 하는 슬픔이 직접 드러난다.
② O — 최 씨는 하느님이 두 사람의 연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자신을 환생시켜 이생과 잠시 지내게 했다고 말한다. 재회가 하느님의 뜻에 따른 것이라는 이해가 적절하다.
③ O — 최 씨는 자신이 하느님에 의해 '이 몸을 환생'하여 인간 세상에서 이생과 잠시 지냈다고 설명한다. 죽은 뒤 환생하여 인간 세상에 머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④ X — 노래에는 '원앙도 짝을 잃네', '해골', '피에 젖어 떠도는 영혼' 등이 나타나 전란의 참상과 죽음, 이별의 슬픔을 드러낸다. '이생과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고 있다'는 표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최 씨가 노래를 통해 폐허가 된 세상과 죽은 이들의 참상을 노래하며 이생과의 이별을 슬퍼하고 있다고 해야 한다.

### 오답 포인트

최 씨가 과거에 하느님의 뜻으로 환생하여 이생과 재회했다는 사실을 앞으로도 다시 만날 것이라는 약속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④의 노래에는 미래의 재회를 기약하는 말이 없고, 오히려 짝을 잃은 원앙과 떠도는 영혼의 이미지가 이별과 죽음의 비극을 강조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의 처지는 대화에서 확인하고, 노래의 정서는 핵심 시어와 이미지에서 확인한다. 과거 재회의 원인과 미래 재회의 약속을 구분하며, 제시문에 없는 미래 의미를 덧붙인 선지는 배제한다.

### 암기 포인트

잠시 환생한 재회는 하느님의 뜻이고, 마지막 노래의 핵심은 재회 기약이 아니라 전란의 참상과 이별의 슬픔이다.

NoteBase

문 11.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 현대에 나타난 가상 공간(cyber space)이 현실 세계와 매우 다른 특성을 갖는 만큼 가상 공간에 거주하는 주체의 존재론적 위상도 변형될 수밖에 없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상 공간에서는 현실 세계와는 달리 육체라는 실재 없이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우리는 게임 속의 가상 인물이나 육체 없는 타인들과 매일 인터넷을 통해 의사소통하고 있다. 이처럼 가상 공간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가상의 세계이지만 이미 우리 삶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현실 세계를 재편하고 변환시키고 있다.

① 가상 공간에서는 육체라는 실재 없이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② 가상 공간은 삶의 일부분이 아니지만 현실 세계를 재편하고 변환시킨다.
③ 인터넷을 통해 게임 속의 가상 인물이나 육체 없는 타인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다.
④ 현실 세계와 다른 특성의 가상 공간에 거주하는 주체의 존재론적 위상은 변형될 수밖에 없다.

**정답 2번**

### 출제 포인트

가상 공간의 특성과 현실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지문의 명시적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문제이다.

### 핵심 개념

가상 공간은 물리적 공간이 아닌 가상의 세계로, 육체라는 실재 없이도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지문은 가상 공간이 이미 삶의 일부가 되어 현실 세계를 재편하고 변화시킨다고 설명한다.

### 선지별 해설

① O — 지문은 가상 공간에서는 현실 세계와 달리 육체라는 실재 없이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고 하므로 부합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삶의 일부분이 아니지만'이다. 지문은 가상 공간이 '이미 우리 삶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므로, 올바르게는 '가상 공간은 삶의 일부분이며 현실 세계를 재편하고 변화시킨다'이다.
③ O — 지문은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 게임 속 가상 인물이나 육체 없는 타인들과 매일 의사소통한다고 하므로 부합한다.
④ O — 지문은 현실 세계와 매우 다른 특성을 지닌 가상 공간 때문에 그곳에 거주하는 주체의 존재론적 위상이 변형될 수밖에 없다고 하므로 부합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뒤의 '현실 세계를 재편하고 변화시킨다'는 내용은 지문과 같지만, 앞의 '삶의 일부분이 아니지만'만 반대로 바꾼 선지이다. 한 문장 안에서 일부 내용이 맞더라도 핵심 조건이 지문과 반대이면 지문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내용 일치 문제에서는 선지를 의미 단위로 나누어 지문의 대응 문장과 대조한다. 특히 '아니다', '없이', '이미', '일부분'처럼 관계를 뒤집는 표현을 우선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가상 공간은 비물리적 세계이지만 이미 현실 삶의 일부이며, 현실 세계를 재편하고 변화시킨다.

NoteBase

문 12.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처용에 관한 『삼국사기』의 사실적 기록과 그로부터 약 140년이란 긴 변이 과정을 거쳐 나온 『삼국유사』의 처용 설화를 비교해 보자. 헌강왕이 돌아다닌 곳이 개운포를 포함한 동쪽 지방이고, 왕 앞에 나타나 노래하고 춤춘 인물들이 그 당시 신라인에게는 생소했던 대상들이며, 처용의 용모와 일화가 이색적이라는 데는 두 문헌이 같다. 그러나 『삼국사기』에는 처용의 이름이, 『삼국유사』에는 그의 출현 연대가 없고, 전자에는 역신(疫神), 처용가, 왕정 보좌 같은 내용이 없으며, 출현자 수가 전자는 4명이지만 후자는 8명이라는 등 다른 점들이 있다.

① 『삼국유사』를 통해서는 처용의 출현 연대를 알 수 없다.
② 『삼국사기』에는 처용의 이름과 왕정 보좌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③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처용이 신라인들에게 생소한 대상으로 기술되어 있다.
④ 처용과 관련된 내용이 『삼국사기』는 사실적 기록인 반면 『삼국유사』는 설화라는 차이가 있다.

**정답 2번**

### 출제 포인트

제시문에 나타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히 대조하고, 제시문과 일치하지 않는 설명을 찾는 문제이다.

### 핵심 개념

공통점은 두 문헌 모두 개운포를 포함한 동쪽 지방, 신라인에게 생소한 인물들, 이색적인 처용의 용모와 일화를 전한다는 점이다. 차이점은 『삼국사기』에는 처용의 이름과 출현 연대가 기록되어 있으나 역신·처용가·왕정 보좌 내용은 없고 출현자가 4명인 반면, 『삼국유사』에는 처용의 출현 연대가 없으며 역신·처용가·왕정 보좌 내용이 있고 출현자가 8명이라는 점이다. 또한 제시문은 처용 관련 내용의 성격을 『삼국사기』는 사실적 기록, 『삼국유사』는 설화로 구분한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O — 제시문은 『삼국유사』에 처용의 출현 연대가 없다고 명시하므로, 이 문헌만으로는 그 연대를 알 수 없다.
② X — 틀린 부분은 '왕정 보좌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이다. 제시문에 따르면 『삼국사기』에는 처용의 이름은 있지만 왕정 보좌에 관한 내용은 없다. 올바르게는 '『삼국사기』에는 처용의 이름이 수록되어 있으나 왕정 보좌에 관한 내용은 없다'이다.
③ O — 제시문은 두 문헌에서 왕 앞에 나타나 노래하고 춤춘 인물들이 당시 신라인에게 생소한 대상이었다는 점이 같다고 설명한다.
④ O — 제시문 첫머리에서 『삼국사기』를 사실적 기록으로, 약 140년의 변이 과정을 거쳐 나온 『삼국유사』의 처용 이야기를 설화로 제시하므로 적절한 비교이다.

### 오답 포인트

②는 한 문장에 맞는 정보와 틀린 정보를 섞은 선지이다. '처용의 이름'은 『삼국사기』에 있지만, '왕정 보좌'는 『삼국사기』에 없는 내용이다. 앞부분만 보고 문장 전체를 옳다고 판단하기 쉽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두 자료를 비교하는 문항에서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누어 정리한 뒤, 복수의 정보를 연결한 선지는 각 정보가 모두 맞는지 따로 확인한다. 발문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요구한다는 점도 마지막에 다시 확인한다.

### 암기 포인트

『삼국사기』는 이름·연대·4명, 『삼국유사』는 역신·처용가·왕정 보좌·8명이다.

NoteBase

문 13.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달밤이었으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 없었다.
>
> 허 생원은 오늘 밤도 또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려는 것이다. 조 선달은 친구가 된 이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 왔다. 그렇다고 싫증을 낼 수도 없었으나 허 생원은 시치미를 떼고 되풀이할 대로는 되풀이하고야 말았다.
>
>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
> 조 선달 편을 바라는 보았으나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에 감동하여서였다. 이지러는 졌으나 보름을 가제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붓이 흘리고 있다. 대화까지는 칠십 리의 밤길, 고개를 둘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달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 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방울 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밭께로 흘러간다. 앞장선 허 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꽁무니에 선 동이에게는 확적히는 안 들렸으나, 그는 그대로 개운한 제멋에 적적하지는 않았다.
>
> —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에서 —

① 특정 소재를 활용하여 인물 간의 갈등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② 이야기 속 인물을 서술자로 하여 사건의 현실감이 강화되고 있다.
③ 배경에 대한 세밀한 묘사를 통해 공간적 분위기가 강조되고 있다.
④ 자연물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사건의 비극성을 암시하고 있다.

**정답 3번**

###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소설의 서술 방식과 배경 묘사가 인물의 정서 및 작품의 분위기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파악하는 문제이다.

### 핵심 개념

서술자는 작품 밖에서 인물과 사건을 전달하는 존재이고, 서술자는 작품 속 사건에 참여하는 등장인물과 구별된다. 배경 묘사는 시간과 공간을 구체화하면서 장면의 정서와 분위기를 형성한다. 비유적 표현의 효과는 표현이 만들어 내는 정조를 문맥과 함께 살펴 판단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인물 간의 갈등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이다. 지문에서 달빛은 허 생원이 조 선달에게 편을 바라는 눈길을 보낸 까닭이자 밤길의 서정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소재로 활용되지만, 인물 사이의 대립이나 충돌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올바르게는 '달빛이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허 생원의 정서와 밤길의 서정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이다.

② X
틀린 표현은 '이야기 속 인물을 서술자로 하여'이다. 지문은 '허 생원은', '조 선달은'처럼 인물을 3인칭으로 지칭하고, 작품 밖의 서술자가 허 생원의 속마음까지 전달한다. 올바르게는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과 내면을 서술하여 사건의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이다.

③ O
칠십 리 밤길의 개울·벌판·산길과 긴 산허리, 달빛 아래의 메밀밭, 붉은 대궁, 나귀의 움직임과 방울 소리 등을 시각적·청각적으로 세밀하게 묘사한다. 이러한 묘사는 달밤의 고요하고 서정적인 공간적 분위기를 선명하게 강화한다.

④ X
틀린 표현은 '사건의 비극성을 암시하고 있다'이다.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 '소금을 뿌린 듯이'와 같은 비유는 달밤과 메밀밭의 생생하고 아름다운 정경을 나타내며, '시원하다'와 '시원스럽게'라는 표현도 비극적 분위기와 거리가 멀다. 올바르게는 '자연물에 대한 비유적 표현을 통해 달밤의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부각하고 있다'이다.

**오답 포인트**

달빛이 인물의 행동과 관련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곧바로 갈등의 소재로 판단하거나, 비유적 표현이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의 비극성을 암시한다고 판단하기 쉽다. 소재와 표현의 효과는 '갈등', '비극성' 같은 선지의 핵심어가 실제 문맥의 정조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서술자가 작품 안의 인물인지 작품 밖의 존재인지 확인한다. 다음으로 배경 묘사에서 반복되는 감각적 표현과 정서어를 찾아 장면의 분위기를 정하고, 각 선지의 효과가 그 분위기와 실제 사건 관계에 부합하는지 대조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배경 묘사는 공간과 정조를 만들고, 비유의 효과는 문맥의 분위기가 결정한다. 3인칭으로 인물을 부르며 내면까지 전하면 작품 밖의 서술자이다.

NoteBase

문 14. 다음 글을 통해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오늘날은 미디어 콘텐츠를 축적, 전유, 재유통할 수 있는 신기술을 일반인도 활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1세기의 예술은 풀뿌리 창의성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 대중은 영화를 만드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집집마다 자신만의 영화 자료실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창작의 혁명은 웹(web)으로 인해 절정에 달하였다. 자신이 만든 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때 창작의 과정은 훨씬 즐겁고, 더욱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웹은 공유와 협업을 위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로 인하여 평범한 개인이 자신의 집에서 만들던 것을 불특정 다수와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①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획일적인 문화적 취향이 형성되었다.
② 웹 기술로 인해 풀뿌리 예술인들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졌다.
③ 일반 대중이 영화 예술의 창작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④ 거대 기업만이 문화 콘텐츠 유통을 독점하는 경향이 약화되었다.

**정답 1번**

### 출제 포인트

글에 명시된 내용과 그로부터 타당하게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 핵심 개념

추론은 글에 직접 제시된 사실과 그 사실들의 논리적 관계를 바탕으로 숨은 의미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이 글은 미디어 기술과 웹의 발달로 일반 대중의 창작 참여와 공유·협력이 확대되었다고 설명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글은 일반 대중이 각자 영화 자료실을 보유하고 자신이 만든 것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므로, 획일적인 문화적 취향이 형성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틀린 표현은 '획일적인 문화적 취향이 형성되었다'이다. 올바르게는 '개인의 창작과 공유가 활발해져 다양한 문화적 취향과 콘텐츠가 나타날 기반이 마련되었다'이다.

② O
웹은 공유와 협력을 위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며, 창작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때 창작 과정이 더 즐겁고 의미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풀뿌리 예술인들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졌다고 추론할 수 있다.

③ O
일반 대중도 영화 제작 도구를 사용하고 자신이 만든 것을 불특정 다수와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일반 대중이 영화 예술의 창작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추론할 수 있다.

④ O
과거에는 대규모 자본과 유통망을 가진 기업이 문화 콘텐츠 유통에 유리했지만, 웹을 통해 평범한 개인도 집에서 만든 것을 불특정 다수와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거대 기업만의 유통 독점 경향이 약화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공유'가 여러 사람이 같은 취향을 갖게 된다는 뜻은 아니다. 이 글의 공유는 각자가 만든 다양한 콘텐츠를 유통하고 협력하는 활동이므로, ①의 '획일적인'은 글의 방향과 반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선지의 핵심어를 글의 근거와 대응한다. 글이 개인의 창작·공유·협력 확대를 말하는데 선지가 획일화처럼 그 방향과 반대되는 결과를 제시하면 적절하지 않은 추론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웹 기반 창작은 대중의 참여·공유·협력을 넓히며, 획일화를 뜻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15. 밑줄 친 부분이 바르게 쓰인 것은?

① 약을 먹은 효과가 금새 나타났다.
② 그는 치사하고 째째한 성격이었다.
③ 우리 친구들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이다.
④ 그녀는 그가 으례 함께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정답 3번**

###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발음이 비슷해 혼동하기 쉬운 단어와 관용 표현의 올바른 표기를 묻는 문제이다.

### 핵심 개념

‘금세’는 ‘금시에’가 줄어든 말로 ‘지금 바로’라는 뜻이고, ‘쩨쩨하다’는 ‘너무 적거나 시시하여 신통치 않다’ 또는 ‘사람됨이 옹졸하다’라는 뜻이다. ‘으레’는 ‘두말할 것 없이 당연히’라는 뜻이다. ‘떼려야 뗄 수 없다’는 서로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여 떨어질 수 없다는 뜻의 바른 표현이다.

### 선지별 해설

① X
‘금새’가 틀린 표기이다. ‘곧바로’라는 뜻으로 쓰였으므로 ‘약을 먹은 효과가 금세 나타났다.’로 고쳐야 한다.

② X
‘째째한’이 틀린 표기이다. 사람의 성격이 옹졸하다는 뜻이므로 ‘그는 치사하고 쩨쩨한 성격이었다.’로 고쳐야 한다.

③ O
‘떼려야 뗄 수 없는’은 아무리 떼려고 해도 뗄 수 없을 만큼 관계가 밀접하다는 뜻으로 바르게 쓰였다.

④ X
‘으례’가 틀린 표기이다. 당연히 그러하다는 뜻의 부사는 ‘으레’이므로 ‘그녀는 그가 으레 함께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로 고쳐야 한다.

### 오답 포인트

실제 발음만 따라 ‘금새’, ‘째째한’, ‘으례’로 적기 쉽다는 점이 함정이다. 특히 ‘금세’는 ‘금시에’의 준말이라는 형성을 기억하면 ‘금새’와 구별할 수 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익숙한 발음에 의존하지 않고 단어의 기본형과 준말의 형성을 확인한다. ‘금시에→금세’, ‘쩨쩨하다’, ‘으레’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떼려야 뗄 수 없다’는 관용 표현 전체를 한 덩어리로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금시에→금세, 옹졸하면 쩨쩨하다, 당연히는 으레, 밀접한 사이는 떼려야 뗄 수 없다.

NoteBase

문 16. ㉠ ~ ㉣의 한자 표기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전의 문법 정보에는 ㉡전통적으로 표제항의 품사와 그 이하의 ㉢형태 정보가 ㉣표시된다.

① ㉠ 事典
② ㉡ 傳統
③ ㉢ 形態
④ ㉣ 標示

**정답 1번**

### 출제 포인트

문맥에 맞는 한자어의 정확한 한자 표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특히 같은 음의 한자어라도 뜻과 쓰임이 다름에 유의해야 한다.

### 핵심 개념

辭典(사전)은 말을 모아 일정한 순서로 배열하고 그 뜻·용법 등을 풀이한 책이고, 事典(사전)은 여러 사항이나 사물을 모아 설명한 책이라는 뜻이다. 지문의 '문법 정보를 싣는 사전'은 단어를 풀이하는 辭典을 가리킨다.

### 선지별 해설

① X — 지문의 '사전'은 단어의 품사와 형태 정보를 제시하는 사전이므로 事典이 아니라 辭典으로 적어야 한다. 틀린 표기 '事典'은 '辭典'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 '전통'은 傳統으로 적는다. 傳은 '전하다', 統은 '계통·전통'을 뜻하므로 '예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라는 문맥에 맞는다.
③ O — '형태'는 形態로 적는다. 形과 態는 모두 사물의 모양이나 상태와 관련되므로 '형태 정보'라는 문맥에 맞는다.
④ O — '표시'는 標示로 적을 수 있다. 標는 '표지·표', 示는 '보이다'를 뜻하므로 정보를 표하여 드러낸다는 문맥에 맞는다.

### 오답 포인트

①의 事典과 辭典은 모두 '사전'으로 읽혀 음만 보고 판단하면 혼동하기 쉽다. 이 문항에서는 '품사와 형태 정보를 제시하는 단어 사전'이라는 문맥이 辭典을 결정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자 표기 문제에서는 음만 맞추지 않고 문장 속 뜻을 먼저 확정한다. 단어의 뜻과 용법을 풀이하는 사전이면 辭典, 여러 사항이나 사물을 항목별로 모아 설명한 책이면 事典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말씀 언(言)이 들어간 辭典은 '말을 풀이하는 사전', 일 사(事)가 들어간 事典은 '사항을 모은 사전'이다.

NoteBase

문 17. ㉠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한국 국적을 가진 내가 이 책에서 '조선인'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 말을 자연스럽게 쓰셨기 때문이고 ( ㉠ )들이 그 말을 가장 차별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단된 두 국가의 어느 한쪽이 아닌, 분단을 넘어선 하나의 민족에 속하는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이다. 근대의 ( ㉡ )와 식민주의에 희생되어 지금도 분단의 고통에 억눌리고 있는 우리는 ( ㉢ )로 전락하기를 최후까지 거부하면서 미래의 열린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고 믿는다. 재일 조선인은 그 역사적 경험 때문에, 그것이 일본 것이든 조국 것이든 모든 국가주의의 허위성과 위험성에 가장 민감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 | ㉠ | ㉡ | ㉢ |
|---|---|---|---|
| ① | 한국인 | 민주주의 | 자본주의 |
| ② | 한국인 | 제국주의 | 자본주의 |
| ③ | 일본인 | 제국주의 | 국가주의 |
| ④ | 일본인 | 민주주의 | 국가주의 |

**정답 3번**

### 출제 포인트

빈칸 앞뒤의 문맥을 근거로 행위의 주체와 역사·사회 개념을 정확히 대응하는 문제이다.

### 핵심 개념

ㄱ은 '조선인'이라는 말을 가장 차별적으로 사용한 주체이므로 일본인이다.
ㄴ은 식민주의와 함께 조선인을 희생시킨 근대의 팽창 논리이므로 제국주의이다.
ㄷ은 민족보다 국가를 앞세우거나 국가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는 태도를 가리키므로 국가주의이다. 글쓴이는 분단 국가 중 어느 한쪽이 아니라 분단을 넘어선 하나의 민족에 속하고자 하므로 국가주의로의 전락을 거부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의 '한국인', ㄴ의 '민주주의', ㄷ의 '자본주의'가 모두 문맥과 맞지 않는다. '조선인'을 차별적으로 사용한 주체는 일본인이고, 식민주의와 짝을 이루는 말은 제국주의이며, 글쓴이가 거부하는 것은 국가주의이다. 따라서 올바른 조합은 '일본인－제국주의－국가주의'이다.

② X
ㄴ의 '제국주의'만 맞고, ㄱ의 '한국인'과 ㄷ의 '자본주의'가 틀리다. 올바르게는 ㄱ이 '일본인', ㄷ이 '국가주의'이므로 전체 조합은 '일본인－제국주의－국가주의'이다.

③ O
'조선인'을 차별적으로 사용한 일본인, 식민주의와 함께 조선인을 희생시킨 제국주의, 분단된 어느 한 국가에 자신을 가두는 국가주의가 각각의 문맥에 정확히 대응한다.

④ X
ㄱ의 '일본인'과 ㄷ의 '국가주의'는 맞지만, ㄴ의 '민주주의'가 틀리다. 조선인을 식민주의에 희생시킨 근대의 사상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제국주의이므로 올바른 조합은 '일본인－제국주의－국가주의'이다.

**오답 포인트**

글에 '미래의 열린 사회'가 제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ㄴ을 민주주의로 고르거나, '모든 국가주의의 허위성과 위험성'이라는 뒤 문장을 놓쳐 ㄷ을 자본주의로 고르기 쉽다. 빈칸마다 바로 이웃한 문장의 인과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주체를 묻는 빈칸은 누가 그 표현을 사용했는지 찾고, 개념을 묻는 빈칸은 앞뒤에 병렬·대립 관계로 제시된 핵심어를 찾는다. 이 글에서는 '차별적으로 사용'이 일본인, '식민주의에 희생'이 제국주의, '분단 국가의 어느 한쪽을 거부'가 국가주의를 가리킨다.

**암기 포인트**

차별의 주체는 일본인, 식민주의의 짝은 제국주의, 분단 국가에 자신을 가두는 태도는 국가주의이다.

NoteBase

문 18.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돌하 노피곰 도ᄃᆞ샤
> 어긔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 어긔야 어강됴리
> 아으 다롱디리
> 져재 녀러신고요
> 어긔야 즌ᄃᆡ를 드ᄃᆡ욜셰라
> 어긔야 어강됴리
> 어느이다 노코시라
> 어긔야 내 가논 ᄃᆡ 졈그를셰라
> 어긔야 어강됴리
> 아으 다롱디리
>
> — 작자 미상, 「정읍사」 —

① 조흥구를 활용하여 리듬감을 자아내고 있다.
② 공간적 소재로써 임이 하는 일을 짐작하게 하고 있다.
③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④ 감각적인 비유를 통해 긴박한 시적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정답 4번**

###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후렴구, 공간적 소재, 의인화, 감각적 비유 등 작품의 표현 방식과 그 효과를 정확히 판별하는 문제이다.

### 핵심 개념

조흥구는 뜻의 전달보다 흥과 리듬을 돋우는 후렴 성격의 구절이다. 의인화는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부르거나 행동하게 하는 표현이고, 감각적 비유는 어떤 대상을 시각·청각 등의 감각적 이미지에 빗대어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 작품은 달에게 말을 건네며 임이 가는 길을 비추어 달라고 비는 화자의 간절한 소망을 드러낸다.

### 선지별 해설

① O — '어긔야 어강됴리', '아으 다롱디리' 같은 조흥구가 반복되어 노래의 흥과 리듬감을 형성한다.
② O — '져재'는 시장을 뜻하는 공간적 소재이므로, 임이 생업을 위해 시장에 갔음을 짐작하게 한다. '즌 디'와 '내가논 디'는 임이 오가는 길과 그 길의 위험에 대한 화자의 염려를 구체화한다.
③ O — 화자는 자연물인 '달'을 부르고 높이 떠서 임의 길을 비추어 달라고 요청한다. 달을 말을 알아듣고 소망을 들어줄 존재처럼 의인화하여 임의 안전을 바라는 마음을 드러낸다.
④ X — '감각적인 비유'로 긴박한 상황을 조성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달', '비취오시라'에는 시각적 심상이 나타나지만, 어떤 대상을 다른 감각적 대상에 빗댄 감각적 비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올바르게는 달에 대한 호소와 조흥구의 반복을 통해 임의 안전을 비는 화자의 간절함과 불안감을 드러낸다고 해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의 '비취오시라'가 시각과 관련된 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곧바로 '감각적인 비유'라고 판단하기 쉽다. 감각적 심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비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 작품의 핵심 표현은 달을 청자로 삼아 소망을 부탁하는 의인화와 반복되는 조흥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표현법 선지는 작품 속 근거를 표현의 정의와 대조하여 판단한다. 감각을 떠올리게 하는 말만 있으면 심상이고, 한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댄 관계까지 있어야 비유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이 아닌 대상에게 말을 걸거나 부탁하면 의인화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어긔야·아으'는 조흥구, 달에게 부탁하는 것은 의인화, '비추다'라는 시각어만으로는 감각적 비유가 아니다.

NoteBase

문 19. 실제 발음을 고려할 때, 국어의 음절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초성이든 종성이든 2개의 자음이 올 수 없다.
② 종성에 위치할 수 있는 자음의 수는 7가지뿐이다.
③ 반모음도 모음이므로 단독으로 음절을 구성할 수 있다.
④ 자음은 반드시 모음과 결합해야만 음절을 구성할 수 있다.

**정답 3번**

### 출제 포인트

실제 발음에서 음절의 초성·중성·종성에 올 수 있는 소리와 반모음의 기능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 핵심 개념

음절은 모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발음 단위이다. 초성과 종성에는 각각 하나의 자음만 올 수 있고, 종성에서 실제로 발음되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가지이다. 반모음은 모음과 비슷하지만 홀로 음절의 중심인 중성이 될 수 없으며 반드시 다른 모음과 결합한다.

### 선지별 해설

① O — 실제 발음의 음절 구조에서 초성과 종성에는 각각 하나의 자음만 올 수 있으므로, 두 자음이 한꺼번에 초성이나 종성을 이루지 못한다.
② O — 받침 표기는 다양하지만 종성에서 실제로 발음되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가지뿐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반모음도 모음이므로 단독으로 음절을 구성할 수 있다'이다. 올바르게는 반모음은 홀로 중성이 될 수 없고 다른 모음과 결합해야 음절 안에서 발음될 수 있다.
④ O — 자음만으로는 음절의 중심을 이룰 수 없으므로 자음은 모음과 결합해야 음절을 구성할 수 있다.

### 오답 포인트

③은 '반모음'에 '모음'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점을 이용한 함정이다. 반모음은 모음과 발음 성질이 비슷하지만, 일반 모음과 달리 홀로 음절의 중심이 되지 못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어떤 소리가 단독으로 중성이 되어 음절의 중심을 이룰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일반 모음은 가능하지만 반모음은 반드시 다른 모음에 기대어 발음된다.

### 암기 포인트

종성의 실제 발음은 7자음, 반모음은 홀로 음절을 이루지 못한다.

NoteBase

문 20. 다음 글을 통해 추론한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우머노믹스(womanomics)'는 '우먼(woman)'과 '이코노믹스(economics)'의 합성어로, 원래는 소득수준이 높은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과 서비스 시장을 뜻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그 의미는 생산의 주체, 소비의 주체, 구매 결정권자로서 여성 역할을 포괄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걸프 지역의 여성 위상 변화가 주목된다. 2000년대 들어 걸프 지역은 유가 상승과 산업 다변화 등을 통해 이슬람 경제 강국으로 급성장했다. 그 과정에서 국가 미래 전략의 일환으로 여성 인적자원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걸프 국가들은 자국민 여성의 경제 참여나 노동 시장의 양성 평등 문제에는 무관심했다. 자원에 기반을 둔 경제 발전 덕에 여성 노동력이 굳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걸프 정부는 자국민 여성 대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했고, 자국민 여성에게는 이슬람의 종교 이데올로기에 부합하는 성 역할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제 걸프 국가는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하고 노동시장 인력 구조를 대체하기 위해 국가 성장의 주요 정책으로 여성 활동을 내세우고 있다. 임금노동자로서 걸프 여성의 위상 변화는 여성의 소비력과 결정권을 강화할 전망이다.

① 걸프 여성의 위상 변화는 '우머노믹스' 시장 확장에 기여하겠군.
② 걸프 정부는 양성 평등을 위해서 여성의 경제 참여를 독려하겠군.
③ 걸프 국가의 경제 성장에 반해 외국인 노동 인력은 점차 감소되겠군.
④ 걸프 지역의 노동시장 구조 변화로 인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겠군.

**정답 2번**

###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걸프 국가가 여성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게 된 목적과 그에 따른 효과를 제시문에서 구분하여 추론하는 문제이다.

### 핵심 개념

제시문에 따르면 걸프 국가의 여성 인적자원 활용은 양성 평등 자체보다 포스트오일 시대에 대비한 경제성장 전략이자 노동시장 인력 구조 대체 정책이다. 여성의 임금노동 참여가 늘면 여성의 소비력과 의사 결정권이 강화되고 사회적 위상도 높아질 수 있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O — 여성의 임금노동 참여로 소비력과 결정권이 강화된다는 내용에서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머노믹스' 시장도 확대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② X — 틀린 표현은 '양성 평등을 위해서'이다. 제시문은 걸프 정부가 양성 평등 문제에는 무관심했으며, 여성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는 목적은 포스트오일 시대에 대비한 경제성장과 노동시장 인력 구조의 대체라고 설명한다. 올바르게는 '걸프 정부는 포스트오일 시대의 경제성장과 노동시장 인력 구조 대체를 위해 여성의 경제 참여를 독려하겠군.'이다.
③ O — 걸프 국가는 과거 부족한 노동력을 외국인 노동자로 충당했지만, 이제 자국민 여성을 노동시장에 참여시켜 인력 구조를 대체하려 한다. 따라서 경제성장이 이어지더라도 외국인 노동 인력의 비중이나 수요는 점차 감소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④ O —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임금노동자로서의 지위 확보가 소비력과 결정권을 강화한다는 내용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추론을 뒷받침한다.

### 오답 포인트

여성의 경제 참여 확대를 곧바로 양성 평등 정책으로 보는 것이 함정이다. ②는 정책의 겉모습은 제시문과 비슷하지만, 그 목적을 '경제성장과 노동시장 구조 대체'에서 '양성 평등'으로 바꾸었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추론 선지는 제시문의 사실과 방향만 비슷한지 보지 않고 원인·목적·결과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특히 '왜 그 정책을 시행하는가'를 설명하는 문장을 찾아 선지의 목적 표현과 대조한다.

### 암기 포인트

걸프 여성 인력 활용의 핵심은 양성 평등이 아니라 포스트오일 경제성장과 노동시장 인력 구조 대체이다.

NoteBase